

美 ESS 설치 4배 성장 전망… K-배터리·부품사 동반 수혜

2030년 145GWh… 연평균 28% ↑
재생에너지 ITC 축소 ESS는 수혜
LG엔솔·삼성SDI, AMPC 지원 확대
ESS 포트폴리오 전환 기업 부각
EV 대비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아

미국에서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북미 ESS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MPC(첨단제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배터리·셀 업체와 전기차(EV) 중심에서 ESS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ESS 설치량은 지난해 33기가와트시(GWh)에서 오는 2030년 145GWh로 연평균 28% 성장할 전망이다. ESS는 남은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함으로써 전력 수급을 조절하고 전력망 안정과 송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기준 중국이 92%를 점유하고 한국은 8%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의 법·제도 변



미국 ESS 설치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북미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화가 국면을 바꿀 전망이다. 지난 6월 통과된 OBBB(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은 축소됐지만 ESS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북미 유틸리티 기업들은 여전히 ITC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 셀·모듈 등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AMP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수취를 위해 탈중국 조항이 적용되면서 북미 유틸리티 기업 입장에서 공급망 재편이 요구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중국산 배터리셀에 대한 고율 관세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중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분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경쟁사 대비 1.5년 이상 빠른 속도로 현재 약 70GWh의 ESS 배터리 수주잔고를 확보했으며 올해 말 17GWh·내년 말 30GWh를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AMPC 규모는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스틸란티스 합작법인 내

유휴 라인 2개를 ESS 전용으로 전환해 올해 4분기 삼원계(NCA) ESS 6GWh·내년 하반기 리튬인산철(LFP) ESS 6GWh를 양산할 계획이다. 내년 ESS 용 AMPC 규모는 약 3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셀 기업뿐 아니라 HD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부품·시스템업체들도 수혜가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1400억 원 규모의 ESS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ESS 시장은 EV 시장 대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향후 수요 확대가 꾸준히 예상된다. 글로벌 EV 배터리 연간 수요가 650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SS는 1200GWh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넷제로보다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며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원이 축소되는 추세”라면서도 “재생에너지 간헐성으로 백업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ESS가 있으면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한화

ABS와 공동연구 착수

미국 선박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파워시스템 등 한화그룹 3사가 미국 선급협회(ABS)와 손잡고 미국 선박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에 돌입한다.

한화 3사와 ABS는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스 에너지 전시회 ‘가스텍(Gastech) 2025’에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사이버보안 규정과 미국 기국(US Flag) 선박 요건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기국 선박은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선박으로

미국 기국 선박은 미국에 등록돼 미국 국적 깃발을 단 선박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와 관계없이 국제 해양법상 미국의 법과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는 미국 상선·해양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해양 사이버보안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공동연구는 미국 사이버 규제 분석, 선종별 통합 보안 체계 구축, 선박 맞춤형 보안 솔루션 개발, 국제표준(IACS UR E26) 기반 기술 확장, 실시간 위협 대응·복원력 기술 고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車업계, 노사 협력 훈풍…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성과급 확대, 보상 강화
기아, 정년·주4일제 등 강경안 고수
한국GM, 철수설 겹쳐 교섭 난항

국내 완성차 업계 만행인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기아와 한국GM 교섭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10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드 기념 500만원+주식 30주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현금만 15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한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기아 노조는 현대차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내놓았지만 현대차의 합의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노사는 현재 임단협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현대차와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약 3조8000억 원)를 전 종업원 성과급으로 지급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2000만원 ▲정년 64세 연장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등 강도가 더 높다.

주4일제 요구와 성과급 규모 등이 현대차 보다 높다. 업계는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점을 고려해 노조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본급 인상 수준은 현대차와 비슷하게 책정된 만큼 빠르게 극적 타결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GM은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은 단순히 임금 인상, 성과급 뿐만 아니라 최근 불

거진 철수설에 대한 갈등까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GM 노조는 ‘공급망 정의위원회 구성’을 단체협약 요구로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터와 공급망 전체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회사가 지난 5월 발표한 부평공장 부지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 센터 매각 방침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격려금·성과급 상향 ▲국내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1600만원 규모의 일시금·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으로 톱3 정조준

IAA 2025서 글로벌 톱3 도약 선언
전동화·통합제어·UX 3대 혁신축 공개

현대모비스가 독일 뮌헨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IAA 모빌리티 2025’를 통해 글로벌 3위 부품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부품사 6위(오토모티브뉴스 기준)에 올라 있다.

현대모비스는 ‘모비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전동화·통합제어·사용자경험(UX)을 3대 혁신 축을 발표했다. 영업부장 악셀 마슈카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모비스가 거둔 성과와 함께 모비스의 미래 기술이 글로벌 수주를 통해 현실화될 사례, 준비

중인 미래 기술 전략을 소개했다.

현대모비스는 ▲향상된 친환경 전동화 ▲최적화된 기능 통합 ▲차량 각뿔 내 사용자 경험 극대화를 선제적 연구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의 세 가지 방향점으로 삼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 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냉각·소화약제 자동분사 시스템 등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개발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셀 발화시 소화약제를 자동분사해 화재를 즉시 진압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핵심 기반 기술로 꼽히는 전자식 조향(SBW), 제동(BBW), 후륜 조향(RWS) 등 차세대 새시 기술을 하나의 제어기로 통합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미래 모빌리티 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전장기술 융합을 통해 디스플레이 없이 차량 유리를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WD)도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IAA에 처음 참가해 전동화 기술 종합 플랫폼인 ‘EV 스케이트보드’를 공개했다. 이는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수주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 연산 36만대 양산 가능한 스페인 공장을 착공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영업부문장 악셀 마슈카 부사장이 9일(현지시간) ‘IAA 모빌리티 2025’ 전시장에서 전동화, 전장 핵심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공략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에 집중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사업체질 개선과 연구개발 고도화를 추진해 오는 2033년까지 핵심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SK하이닉스

AI 솔루션 최적화 추진

데이터센터 성능검증 확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일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해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의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와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